

초등생 영어실력 격차 줄인다

내년부터 시가 영어말하기 교육

교육부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지역·소득 따른 격차완화 기대
1대1 대화, 맞춤형 콘텐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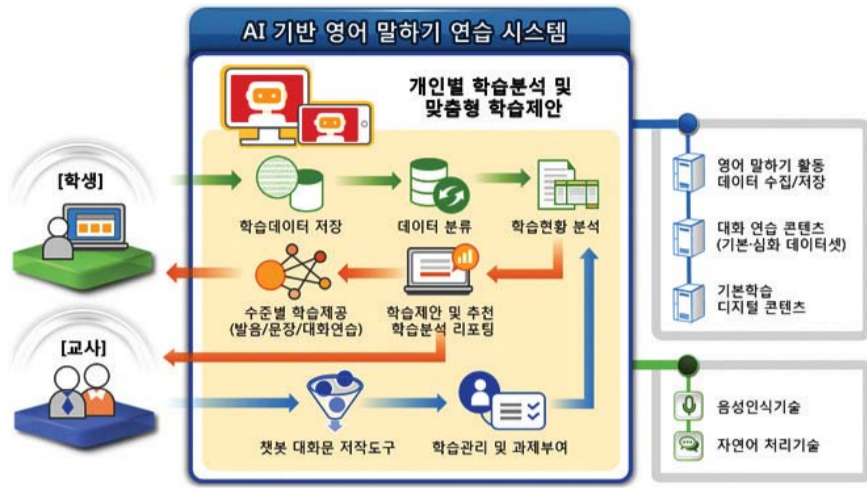
초등학교 교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도입되고,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어 교육 등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턴 정규 영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선행학습이 필요치 않도록 초3 영어를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르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완화가 목표다. 영어 노출과 사용 기회를 확대해 모든 학생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영어교육 진입기의 학습경험이 중·고교서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턴 시작되는 정규 영어교육에 초점을 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일부 개정해 놀이·활동 중심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3 영어 교육과정을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기초부터 가르치도록 성취기준을 정하고, 1학기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알파벳, 파닉스 관련 진단 검사를 실시해 영어 보충 학습지도도하기로 했다.



AI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념도

/교육부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영어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개발된다. 내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2021학년도부턴 전국 학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1대 1로 대화연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춰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듣기·말하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를 구비한 'EBS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개편된다. 오디오북, 텍스트북을 구비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구간 반복듣기 기능, 사전 찾기, 단어장, 퀴즈 등 서비스가 추가된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영어 교과서별·차시별 학습

영상,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초6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 등 EBS 영어 학습 콘텐츠도 확대 제공된다.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과 연계해 편안한 학습 공간에서 영어 도서·학습교구·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놀이터'도 올해 하반기 준비를 시작해 내년 100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2021학년도부턴 확산키로 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화상 영어수업, 영어캡슐 열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영어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토크 장학생'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내실화 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학부모 신뢰를 얻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학교 영어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투본성에 눈 뜬 육군되자



문형철

국방기사와 칼럼

50만 병력과 막대한 전력을 갖춘 대한민국 육군, 하지만 경계도 싸움도 할 수 없는 박제 '공룡(군용-육군을 뒤집음)'이 되는 건 아닐까.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제대로 된 경계를 펼치지 못했고,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장비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 북한 어선이 우리 군의 제지없이 입항했다.

1차적 책임은 해상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해야 하는 해군이겠지만, 해안에서 1.5km까지의 해상은 분명 육군의 경계구역이다. 18년 전 8군단 모처의 해안경계 소초장으로 부임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일출 전에 수색팀을 꾸려 매일 '수제 선 정밀정찰'이라는 해안가 수색작전을 펼쳤다. 크기는 작지만 육경정으로 선박감시조 활동을 펼치던 8군단은 어디로 갔을까.

삼척항 일대의 해안경계는 8군단 이하 23사단이 맡고 있다.

23사단의 경계책임 구역 인 강릉 일대에서 1996년 9월 18일 어민에 의해 북한군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채로 발견됐다. 같은해 11월 5일까지 지속된 대침투 작전에서 군인 11명과 경찰 1명, 예비군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교전 또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번 경계소홀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

지 않는다. '열상장비(TOD)가 문제', '병력 부족이 문제' 이런 부분적인 지적은 과거에도 줄곧 제기돼 왔으니까.

이제 육군은 근본적 문제해결, '싸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군을 과학화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등 대 정부의 입맛 맞추기식으로 군사과학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야전의 계몽과 교육, 진지한 성찰보다 군과학화를 자랑하기식 홍보에 더 힘을 싣게되면, 싸우는 군대의 대오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달리는 법을 모르는 돼지에게 말발굽을 달아준다고 돼지가 달릴까. 자신이 돼지가 아닌 투견이라는 본성을 먼저 깨닫게 해야된다는 말이다.

육군이 군과학화장비현대화의 홍보를 위해 제시하는 사진들과 자료를 보면 한숨이 난다. 전투원의 헬멧에 부착돼야 할 전투기록용 카메라가 엉뚱한 곳에 부착되고, 견고해야 할 소음기는 하늘로 날랐다.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의 소프트 아머는 덤다는 이유로 빼놓고 다닌다.

도입했거나 도입할 장비들의 군요구 성능(ROC)이나 구매요구도 등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행정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전투원 개인을 전투플랫폼(무기체계)처럼 만든다는 데 현재의 모습은 그냥 흉내일 뿐이다.

그렇다고 육군 전체가 무능하거나 싸움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 상층부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일선에서 강한 투견처럼 단련하는 장병들이 다행히 아직은 많다. 군과 정부는 이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함께 그들의 전투본성을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정부는 군인의 전투본성을 억누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captinn@

서울시교육청

자율적 학생중심 교육 혁신학교 8곳 신규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8곳(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서울아현초·서울미동초·서울봉래초·서울신안초·서울영희초·서울양남초 등 초등학교 6곳과 연서중·동구여중 등 중학교 2곳이다.

이들 학교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 6개월 간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도록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다. 2015년 33교가 공모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8교, 2017년 32교, 2018년 24교 지정됐고, 올해는 지난 3월 1일자로 15교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42곳, 고등학교 15곳 등 총 221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급식이 중단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나온 빵과 주스 등을 먹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 21% 급식 중단

급식 정상운영 학교 1386곳 늘어
교육부, 대체급식 위생관리 나서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파업이 4일에도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 급식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4일 10시 기준, 교육부가 국공립 유·초·중·고교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1만 7342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날(2만 2004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파업참여인원 비율은 세종(29.4%)이 가장 높고, 강원(23.5%), 전남(21.6%), 제주(18.5%), 전북(14.5%), 광주(14.1%)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11.6%), 경기(10.9%), 서울(5.7%) 순으로 파업 참여 비율이 높다.

급식이 정상운영되는 학교는 전날보다 1386교 증가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1만 454개 학교 가운데 8277교(79.2%)는 정상 급식이 진행되지만, 2177교(20.8%)는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1662교는 빵과 우유, 도시락 지참 등 대체 급식이 진행된다. 전날에 이어 109개 학교는 단축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파업관련 학교 현장 급식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체급식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하계 진로캠프' 개최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19 SJ Plan It 하계 진로캠프'를 지난달 25일~28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 진로캠프는 약 4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캠프는 'STEP 1. 진로설정', 'STEP 2. 진로역량강화' 등 총 2개의 단계로 구성해 진로 준비도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STEP 1. 진로설정'은 ▲'내 성격 알아보기' ▲'내 흥미 알아보기' ▲'직업의 의미' ▲'직업의 탐색' ▲'미리 보는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19 SJ Plan It 하계 진로캠프'를 지난달 25일~28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

/세종대학교

취업절차'를 통해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전국모의유엔대회 2관왕

국민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 25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한국협회 주최하고 강원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박 4일 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전국 36개 대학 학생 258명과 지도교수 30명이 참가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비국가행위자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의 역

할 ▲유엔평화 유지 활동 강화 방안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유엔의 역할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의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대상 수상자는 외교부장관상과 더불어 뉴욕 유엔본부에 방문하여 4박 5일간 국제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학술 토론 소모임 'COSMOP' 학생들은 학교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여, 대상(안민혁·박양균 정의 14)과 우수상(박재형 정의 18)을 차지했다.

/한용수 기자